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<small>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</small>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1. 22(수) 총 3매(본문1)	
담당 부서	국토정보 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형석, 주무관 윤형석 • ☎ (044) 201-3458, -3464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LX 성추문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TF 논의를 통해 재발방지대책 구체화 및 대응시스템 강화 논의

- 국토교통부는 언론에 LX공사 내 일부 직원의 성추문이 보도되어 사회적 비난이 가중됨에 따라 국토부와 LX, 외부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.
- 11월 22일 국토정보정책관 주재 하에 개최되는 첫 번째 TF 회의에서는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하여 제 식구 챙기기 식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엄정한 조사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
 - 징계양정기준의 강화, 신고 - 조사- 징계단계별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, 비위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·비공개 핫라인 신설, 선제적 예방을 위한 상시적 성희롱 방지교육 의무화 등 성추문을 뿌리뽑기 위한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 - 더불어, 고착화된 공직사회의 갑질문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계별 조치 등 대응 매뉴얼 및 2차피해 방지대책 등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- 전만경 국토정보정책관은 성추문 재발방지는 물론 양성평등을 토대로 한 합리적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TF에서 결정된 사항을 속도감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김형석 국토정보정책과장(☎ 044-201-3458), 윤형석 주무관(346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T/F 구성(안)

구 분	소 속	직책 및 직급	성 명	비고
국토교통부	국토정보 정책과	과 장	김 형 석	총괄
	지적재조사 기획단	시설사무관	류 제 룡	
국토지리 정보원	지리정보과	시설주사	문 지 영	여성
한국국토 정보공사	감사실 (감사2부)	수석팀장	김 병 완	
충청북도	토지정보과	시설사무관	김 민 정	여성
민간 전문가 (갑질 관련)	(사)여성노동 법률지원센터	대 표	최 미 진	여성
민간 전문가 (법률 자문)	법무법인 지 향	변 호 사	이 상 희	여성

* 충청북도(김민정) 위원은 前 충청북도 성희롱고충심의위원 경력 보유

* 갑질관련 민간전문가는 여성가족부 추천을 받아 선정

1.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양정기준 강화

- 現 징계양정기준 중 비위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구분에서 제외하여 최소 감봉이상이 되도록 양정기준 강화
- 성폭력의 경우는 해임조치 이상으로 징계수위 강화
- 성폭력은 2년, 성희롱은 1년간 승진임용 제한(현재는 3개월)

《 현행 LX 양정기준 》

구 분	비위정도 重 고의성 有	비위 重 & 중과실 / 비위 輕 & 고의 有	비위 重 & 경과실 / 비위 輕 & 중과실	비위정도 輕 경과실
성폭력	파면	파면-해임	해임-강등	강등-정직
성희롱	파면	파면-해임	강등-감봉	감봉-견책
성매매	파면-해임	해임-강등	정직-감봉	견책

2. 엄정한 조사-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

- (현행) 내부직원 조사(男 1, 女 1) → 감사실에서 징계처분 요구
→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양형 결정
- ⇒ (개선) 외부전문가 조사 참여(男 1, 女 1) → 외부위원 3,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요구
→ 외부 4, 내부 4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양형 결정

3. 성추문 뿌리뽑기를 위한 대응시스템 강화

- LX 내부통신망에 ‘성희롱 고충상담 신고센터’ 개설
- 성추문 관련 사건은 지역본부가 아닌 본사에서 주관
- 성추문 사고 대응을 위한 별도조직 또는 전담직원 배치
- 성추문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내실화

※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고, 결정된 사항은 속도감있게 실행